

한미 FTA시대 개막

시름에 잠긴 전남 농촌

“소·닭 키우는 사람 죽으라는 소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된 2일, 전남 농촌 곳곳은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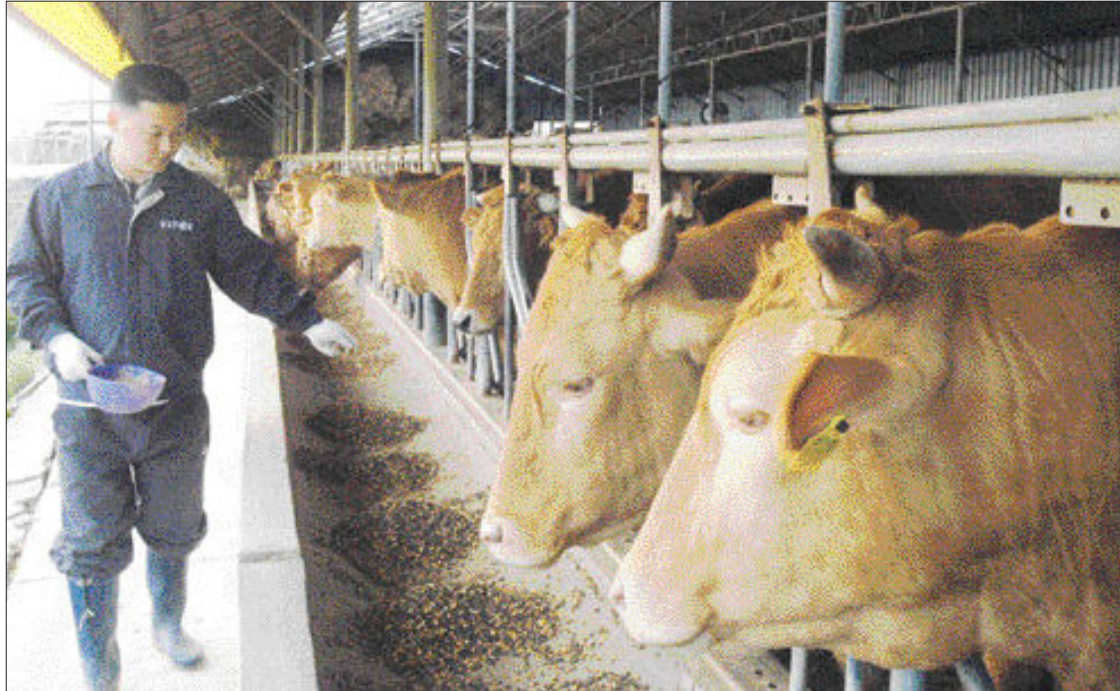
주소득원인 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일손을 놓고 시름에 빠졌다. 전국 한우 생산액의 15.2% (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현재 40%인 쇠고기 수입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되면 3만 4천800여 호의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3천590여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양계농가도 단계적인 관세 폐지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축산농가가 몰려있는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한우 60마리에 줄여 물을 쾅기던 김재인(50)씨는 “우리 국민들이 값싼 미국산 대신 한우를 찾아 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한우농가의 흥수 출하가 빚어질 것...”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닭을 키우는 함평지역 양계농들은 이날 오후 내내 전화통을 붙잡고 경쟁비 중 80%를 차지하는 사료 값 인하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집단촉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함평군 해보면 ‘금곡농장’ 이선열(52)씨는 “지금도 수입산 닭이 25%를 차지하는데 개방되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불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생산비는 1kg당 1천 200원인데 미국은 관세가 붙어도 8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계농 시설이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니 정부가 시설 보안을 해주고 경쟁력 있는 농가를 집중적으로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소에 여물을 주는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한 한우농가 주인의 얼굴에 짙은 근심이 깔려있다. FTA 협상 타결로 전남의 과수농가와 소·닭 등 축산농가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0억~40억 시설 투자 어찌하나...” 배·사과 등 과수농가도 근심 걱정

함평군 월야면 ‘함평천지 양계농업 영농조합’ 전일성(55)씨는 “전남 농가의 3분의 1이 떠날 것”이라며 “빠져나갈 구멍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축산업은 특성상 쇠고기 값이 떨어지면 돼지고기값이 하락하고 이어 닭값도 내려간다는 분석이었다.

“IMF 지나고 조류독감(AI) 극복하니 이전 FTA 개방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죽으란 소리와 같소. 양계농은 새로 지어야 하기 땀새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도 없어

30억~40억원 투자해 놓은 시설물 없애지 못하고 죽으나 사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라.”

배 과수원에서 1~2일 짙게 내린 황사를 털어내던 선송자(여·64·영암군 작천면 삼열리)씨는 “FTA가 된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배나 사과 같은 과수에도 타격이 오게 라?”며 되레 물어봤다.

지난해 흑성병(검은별부늬병)으로 600여 평의 과수원에서 250만원 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한 선씨의 올해 수확 목표는 500만원. 하지만 취재

진은 그녀에게 배·사과 농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반면 쌀이 개방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나주 등 쌀재배농가들은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미국이 두고두고 개방 압력을 넣지 않겠느냐”며 긴장감을 풀지 못했다.

전남대 전태갑(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확실한 준비도 없이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 농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 농업을 고사(枯死)시킬 것”이라며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과학 영농기술’을 도입, 대량생산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허위사실·후보 비방 UCC 처벌

검찰, 선거운동 기간 단속 기준 마련

한 문서(UCC) 게시 행위이다. 단순한 지지 모임이나 선거준비 행위를 벗어나 자금 모금과 운동을 위해 설립된 팬클럽도 처벌된다.

또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 단순

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괜찮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UCC를 게시하거나 다른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퍼나르는 행위는 처벌된다.

검찰은 국내의 동영상 UCC 사이트와 포털 UCC 사이트 등 선거 관련 UCC의 예상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해 탈법 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연형뉴스

“복장 불량” 교사가 치마단 뜯어

여고생 투신 자살

광주 모 아파트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로부터 복장이 불량하다며 치마 단을 뜯긴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일 오후 8시7분께 광주시 북구 J아파트 앞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조모(17·광주 S여고 1년)양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양은 곧바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2일 새벽 1시30분께 장과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양은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오전 8시에 교내 생활지도 과정에서 “치마가 너무 짧다”며 학생부 교사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부 여교사들이 치마 단을 면도칼로

뜯자, 데이프로 불인 채 방과 후 부모에게 하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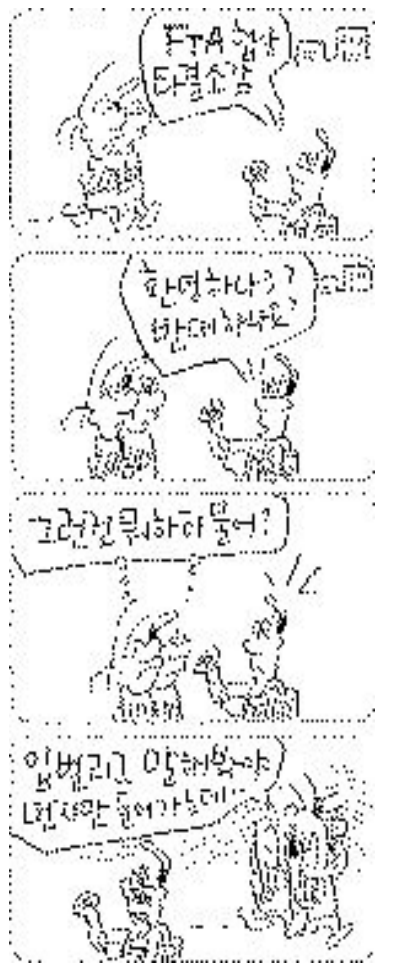
경찰은 조양이 최근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멀리하는 것 같아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같은 학교 학생의 말에 따라 친구 문제로 고민을 해오던 조양이 복장 때문에 참피를 당하자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조양의 부모, 친구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S여고와 같은 재단인 S중학교에서는 지난 2005년 5월 두발 규정 을 어기고 퍼머를 한 채 학교에 갔던 정모(14·당시 2학년)양이 교사와 부모에게 잇따라 꾸중을 들은 뒤 자신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093) 김장동



학생 자살 부른 중·고복장 규정

학교마다 제각각... 상대적 불만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 등을 규제하는 각 학교의 자체 규정이 제각각 이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중·고생들이 즐겨 찾는 ‘아이 두’(www.idoo.net) 등 인터넷 사이트는 학생들 간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교복 치마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꾸중을 받은 신입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S고의 복장 단속이 엄격하기로 소문 난 곳. 학교 측은 교복 치마가 무릎을 덮어야 하고 목 폴라와 양말의 색깔을 맞추도록 엄격히 지도하고 있다.

광주 전산고의 경우 교복 속에 원색 또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면티를 입으면 안 되고, 머리에 무스 등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남학생은 머리카락 길이가 8cm이내여야 하며 컷수염과 구레나룻은 반드시 깎아야 한다.

반면 복장과 두발에 관대한 학교들도 있다. 전남여고는 치마가 무릎을 덮어야 하고 몸에 꼭 조이는 바지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나친 단속은 하지 않고 있

다. 경신여고는 머리염색을 하거나 퍼머만 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길이는 길어도 상관없다.

이처럼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단속이 느슨한 학교의 학생들은 교복을 변형시켜 유행시키는 등 자유를 만끽하는 반면 복장 단속이 심한 학교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일선 고교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단속은 자칫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탈선을 방지할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놓여 있다”며 “학교와 교사가 만든 일방적인 규정보다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공고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생활 규정(두발) 개정 토론회’를 갖고 발제자로 나온 학생·학부모·교사·동창회 대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두발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광역시 중·고복장 규정을 둘러싼 3,636 피해당첨! (광주지역 4·5·6학년 4,000명 이상) 수권선도시 피오래 062-367-9000

행인 흥기 납치범 검거

화순경찰은 2일 광주 롯데백화점 건너편에서 행인을 흥기로 위협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납치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한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20대, 도서관서 떠든 중학생 손찌검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중학생 형제에 손찌검을 한 취업 준비생이 경찰서행.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합이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지 않자 화끈에 군밤을 서 너대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Upgrade 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무인재발 개성음. 세기보청기.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